



광주, 안방서 경남FC 꺾고 '쏠구단 상대 승리' 노린다

내일 후기리그 6라운드...전남, 광양서 부산과 한판



프로 축구 광주 상무가 이번 주말 안방에서 중위권 도약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신생팀 경남 FC와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후기리그 6라운드 경기를 벌인다.

광주 상무는 현재 1승 1무 3패(승점 4점)로 13위, 경남FC는 12위로 두 팀 모두 하위권으로 내려앉아있다.

경남은 최근 5경기서 6득점, 10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광주는 '약팀 경남'의 빈약한 수비력을 뒤흔들어 중위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우선 최전방에 '필승카드'인 정경호와 남궁도를 투입으로 내세워 상대 골문을 공략하는 한편 아시안 게임

대표선수 선발이 유력한 미드필더 박우성을 허리에 배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동명이인(同名異人)' 간대결도 흥미거리다.

'광주의 정경호(26·FW)'와 '경남의 정경호(19·MF)'가 그 주인공.

기록상으론 공격수인 광주 정경호가 올 시즌 2골을 터뜨려, 미필더로 1골을 기록한 경남 정경호에 비해 앞선다.

하지만 경남의 정경호 역시 창단 1호 도움을 기록했고, 창단 첫 승의 결승골을 넣는 등 공수를 누비며 맹활약하고 있어 두 선수간 '허리 다름'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이번 경남전에서 승리하면 2003년 K리그에 참가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하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한편 9위에 랭크된 전남드래곤즈도 이날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4위 부산 아이파크와 힘겨운 맞대결을 벌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뒤어오른 '수비장벽'

리버풀의 피비오 아우렐리오가 21일 새벽 맨체스터 열린 2006~200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차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서 프리킥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리버풀이 2-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AFC 챔피언스리그 첫 정상 도전 현대 家 울산·전북 "양보는 없다"

4강에서 맞대결

'현대(家) 형제' 울산과 전북이 나란히 200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라 K-리그 클럽의 첫 우승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은 2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 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 2차전 알 사바브(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정경기에서 후반 4분 터진 박동혁의 헤딩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지난 13일 홈 1차전에서 6-0 대승을 거둔 울산은 이로써 2전 전승으로 준결승 진출을 확정, 전날 저녁 전주에서 상하이(중국)에 짜릿한 역전극을 펼쳐 4강에 선착한 전북과 결승 티켓을 놓고 격돌하게 됐다.

'현대(家) 형제 대결'인 전북과 울산의 준결승 1차전은 오는 27일 전주에서, 2차전은 다음 달 18일 울산에서 열린다.

울산과 전북은 4강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돼 일단 K-리그 팀의 결승 진출은 예약된 상황이다.

또 하나의 결승행 티켓 주인은 알 카라마(시리아)-알 카디시야(쿠웨이트)전에서 가려진다.

한국은 AFC 챔피언스리그 전신인 아시안 클럽선수권대회에서 여섯 차례나 챔피언에 오른 최다 우승국이다.

1967년 시작된 클럽선수권대회에서 대우 로얄즈(1986년), 일화 천마(1996년), 포항 스틸러스(1997, 1998년), 수원 삼성(2001, 2002년) 등이 정상에 올라 한국 프로축구의 매운 맛을 알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호 풀타임 맹활약 아드보에 4연승 선물

러시아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이호(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풀타임 활약하며 아드보카트 감독에게 4연승을 선물했다. 이호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페트로프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 축구 3부리그 팀인 치타와 러시아 안갑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교체 없이 9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호와 합류받은 먹고 있는 '제니트 3인방' 가운데 현영민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출전해 45분을 소화했고 김동진은 결장했다.

제니트는 전반 29분 블라디슬라프 라디모프가 선제골을 넣은 뒤 전반 43분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허용했으나 1분 뒤 파노프 알렉산드라가 결승골을 성공시켜 2-1 승리를 거뒀다.

지난 7월 열린 16강 1차전에서 2-1로 이겼던 제니트는 이로써 1, 2차전 합계 4-2로 승리하며 대회 8강에 진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현일·박성환 나란히 16강행

세계배드민턴선수권 남단식

한국 남자단식의 간판 이현일(김천시청)과 박성환(한국체대)이 제15회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16강에 올랐다.

세계랭킹 5위인 이현일은 21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더 펠라시오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회 사흘째 남자단식 32강전에서 체코의 J. 프롤라치를 2-0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한 수 아래 기량의 상대를 만난 이현일은 1세트에서 좌우 연타와 스매싱을 적절히 구사하며 주도권을 장악한 뒤 2세트는 단 4점

만 내주고 완승을 거뒀다. 박성환은 뉴질랜드의 존 무디를 역시 2-0으로 꺾고 16강에 합류했다.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는 남자복식의 정재성(삼성전기)-이용대(화순실고)조는 벨기에의 마우엣-클라에스 조를 2-0으로 눌렀고 황지만(한국체대)-한상훈(경희대)조는 말레이시아 찬총밍-쿠기엔킷 조에 기권승을 거둬 16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혼합복식의 이용대-황유미(대교농고) 조는 지독한 판과 관중 속에 독일의 호프-오베르지에르 조에 1-2(21-18 19-21 18-21)로 역전패했다.

한국, 호주에 1-2 패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한국이 제22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복병' 호주에 발목을 잡혔다.

한국은 21일 쿠바 상티 스피리투스시 후엘가 구장에서 열린 예선리그 A조 3차전에서 호주에 1-2로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한국은 1승 뒤 2연패에 빠져 남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경기 결과에 따라 결선 라운드 진출 여부가 갈리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2일(금)
- ▲메이저리그(미네소타-보스턴)<07:55·Xsports>
 - ▲신세계배 KLPGA 선수권대회 최종R(14:00·MBC ESPN)
 - ▲세계군인태권도 선수권(14:10·KBS 1)
 - ▲한국오픈골프 2R(14:10·KBC)
 - ▲네덜란드 잔부트 F-3 자동차 경주대회(14:45·MBC)
 - ▲경기 연고전 야구(14:50·SBS스포츠)
 - ▲KOVO컵 양산 프로배구대회(LIG-대한항공)(16:00·KBS SKY Sports)
 - ▲프로야구(현대-삼성)(18:00·KBS SKY Sports, 18:30·MBC ESPN), <KIA-두산>(18:15·SBS스포츠)
- 23일(토)
- ▲PGA투어 발레로 텍사스 오픈 2R(05:00·SBS스포츠)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환기유니트

당신의 중심이 살아남니까

중심은 힘

네가 가진 모든 남성 의료가
3분이면 수술이나 약없이 후복!

www.mingpa.co.kr